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15일 춘천 침거 정리… 15일 정계 복귀 선언” 민주당권 경쟁 본격화·당 역학구도 지각 변동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15일 2년 동안의 춘천 침거 생활을 정리하고 상경,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한다.

민주당 '빅 3' 가운데 한 명인 손 고문의 복귀로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당내 역학구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12일 손 고문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손 고문은 오는 15일 춘천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실정치 복귀를 선언한다.

손 고문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소회와 함께 사회 양극화와 남북관계 등 국가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손 고문은 이날 민주당의 변화와 정권 교체에 대해 당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과 함께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식적인 대표 출마 선언은 당내 상황 등을 고려, 시차를 두

고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의 복귀는 민주당이 대표 경선 방향 등 전당대회를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춘천에서 더 머무르다가는 대표 출마 여부를 떠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자 정치적 기반이 침식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 고문이 당권을 잡은 뒤, 대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행보를 정한 것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손 고문 측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과 각 당권 주자 캠프에서 실시한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 손 고문이 수위를 달리고 있다며 당권 출마 선언이 이뤄진다면 '손학규 대세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민주당 손 고문 측 인사들은 전대기구 인선의 불공정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등 사실상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손 고문 측 인사는 "15일 기자간담회는 당권 도전 여부보다는 국민과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밝히는 자가 될 것"이라며 손 전 고문은 종로 창신동 아파트에 머물 예정이며 당분간 다양한 인사를 만나 구상을 나누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이 현실 정치 복귀 선언으로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된 당권 경쟁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각 당권 후보 캠프에서는 손 고문이 조만간 당권 도전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해득실을 째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손 고문과 지지 기반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전 대표 진영은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권 도전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측에서도 손 고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권 도전에 나서는 박주선 김효석 의원도 손 고문의 현실 정치 복귀에 따른 당권 구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권 도전 여부를 떠나 손 고문의 현실 정치 복귀 그 자체로 당권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특히,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됐던 당권 경쟁전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ium@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용섭 의원이 LH공사 부실 질타

/연합뉴스

LH공사 부실 질타

진영 의원도 '이탈' 선언… 구주류 소외 탓?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가 흔들리고 있다.

조장인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며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데 이어 박 전 대표의 신임이 두터웠던 진영 의원마저 '친박 이탈'을 공식 선언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진영 의원은 12일 한 인터뷰에서 "이제 친박이란 울타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앞으로 친박이 아닌 중립으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세종시 수정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별 분위기가 감지된 적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친박계는 말을 아끼는 목숨이지만 당 일각에선 친박내 '구주류'와 '신주류'간 갈등이 자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007년 경선 당시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핵심

인사였고, 진 의원은 캠프에는 참여

하지 않았지만 외곽에서 활동하면서 박 전 대표의 신임을 얻었다.

반면 경선 패배 이후 박 전 대표가 '조용한 행보'에 돌입한 이후에는 비서실장 역할을 맡은 유정복 의원과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최측근으로 부상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와 진 의원 등 '구주류'가 소외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따라 박 전 대표도 이제 대선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박 전 대표가 성급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세이다. 트위터를 통해 균황을 알리던 박 전 대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오는 1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추도식을 시작으로 박 전 대표가 공개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대준비위 재구성·조강특위 중단을"

정봉주, 'BBK 의혹 후회' 비판

손학규계 의원 12명 요구

'룰' 논의서 본격 세 과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불공정을 이유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재구성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의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손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이 이처럼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계파 간 수싸움이 험에 '전대률' 논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본격적인 세 과시로 풀이된다.

수도권 3선인 정장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지도부가 임의로 구성한 전대준비위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문화상 전대준비

위원장을 부당함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헐저히 목发挥了. 특정 후보는 당 대표로 출마조차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대 유권자인 대의원 구성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도 매우 편파적"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전대를 위해 전임 대표가 지명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조강특위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의원은 정장선·신학우·우재경·이천열(이상 수도권), 김동철(광주), 이준석(전북), 김우남(제주), 박은수·서종표·송민순·이성남·전혜숙(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 12명으로 수도권 출신과 손 전 대표가 공천한 비례대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반

성문에서 'BBK로 상징되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매몰됐다'고 말하면서 '이 대목에서 진정으로 빼아온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며 "저 정봉주의 정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일반 상식을 짓밟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BBK와 관련된 의혹은 도덕성 검증 과정이었고 많은 국민이 알고자 했던 내용이었으므로 네거티브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 대선 경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 반성문은, 잘못됐을 뿐 아니라 거짓의 괜"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

관상 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성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실패는 인간 반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족시주란? 우리의 천지를 풀어이 귀족시주! 사주풀이가 나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꾀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부쳐진 귀족시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과	교과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 초급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 고급	9월31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	사주명리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고급	9월1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29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부터 -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 (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전화 ☎ 062)366-9666, 367-8666

e-mail : hanja-exam@hanmail.net / FAX : 062)366-9779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한국산업관련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연수목적: 한자·한문의 물버는 교육을 담당할 실력과 자격을 겸비한 유능한 교사 양성

■ 연수대상: 남·녀·노·소·한국자급수, 학력제한없음 18세이상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강료: 300,000원 능력 175375-56-065137 예금주 : 이종순

■ 모집인원: 각 과정별 25명

■ 접수처: 각 과정별 28(경관리협회부부)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교육과정: *중임연수원과 동일한 교재로 명강의를 합니다.

국회는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법 철학, 업무능력 등 자질을 검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 개혁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비중을 뒀으나, 야당 의원들은 그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당시 거주하지 않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둘렸으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전남대학교(5기) 광주여자대학교(11기)

개강일시 · 월요일 주간반: 2010. 8. 30(월) 09:00
야간반: 2010. 8. 30(월) 18:0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모집인원 · 기초반: 주·야간반 각 30명
· 실학반: 주·야간반 각 15명

수업시간 · 매주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수강료 ₩ 300,000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미수시 총점 평균 수준에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인의회 회장
자리에 취임(기획부(2단계 수료시))

· 각 학과별로 평생학습 및 강사 추천

· 각 학과별로 평생학습 및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
(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530-3873-5
▶ 지도교수: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INNAMON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 문 의 : 062)530-3852-4
▶ 지도교수: 011-6